



자랑스런 민주노조 30년... KBS의 역사입니다!



노조 창립 30주년 기념식

2018. 5. 17.(목) 오후 6시
여의도 KBS 신관 웨딩홀

본부노조 동지 여러분,
KBS 민주 노조의 역사를 확인하세요!

‘주·저·하·지·맙·시·다’

지난 1988년, 그 엄혹한 시절, 우리 선배들은 위협과 손해에도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주저하지 맙시다’, 이 일곱 음절은 우리노조가 처음으로 발행한 노동조합 소식지의 머리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988년 6월 2,500명이던 조합원 숫자는 1988년 7월, 딱 한 달만에 3,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노조에 가입하면 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던지, ‘업무 상 노조에 가입하면 사직해야 한다.’ ‘던 온갖 탄압이 횡행하던 시기에도 우리 선배들은 뭉쳤습니다. 다 같이 모여 노동조합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던 선배들을 모셨습니다. 김환균 위원장을 비롯한 언론노조 동지들과 언론시민단체 대표자들, 그리고 지난 2008년 MB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로 우리 곁을 떠났던 정연주 전 사장님 등 외빈들도 참석합니다. 지난 파업기간 함께하신 2,300여 조합원 여러분들 가운데, 14분을 따로 모셔 ‘자랑스러운 조합원’상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30년 전보다 얼마나 더 앞으로 나아갔을까요? 선배들과 동료들과 소주도 한 잔 나누면서 얘기를 나누시죠.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랑스런 본부노조의 30년...

오는 20일은 KBS에 민주노조가 창립한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보통 30살이면 '마음이 확고하게 도덕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나 이'라는 뜻으로 '이립(而立)'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노조의 곁에 비추어보면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KBS 한 국방송의 노조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긴긴 30년 역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선배와 후배가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상윤



김영삼



정유진

정유진 : KBS 노조 창립 30주년이잖아요. 그런데, 후배들은 그렇게 오래 된 줄 잘 모르거든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현상윤 : 1987년 6월 항쟁의 열기에 힘입어서, 각 언론사에 노조가 생기게 됐어요. KBS에도 1988년 5월 20일 노조가 만들어졌죠. 사실 그 당시에 KBS는 사실상 관제언론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출입처에서 KBS기자들을 잘 받아주지도 않았을 정도예요. 그런데 노조를 만들고, 1990년 'KBS 사태'라고 불리는 파업을 하면서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죠.

정유진 : KBS 본부노조가 2010년도에 출범했잖아요? 본부노조가 어떻게 생기게 됐죠?

김영삼 : 2008년도에 박승규 위원장 때, 언론노조에서 탈퇴했어요. 저도 그렇고, 현상윤 선배도 그렇고 언론노조의 KBS본부장으로 있었죠.

현상윤 : 잠시 이 얘기부터 해야하는데, 2000년에 KBS노조가 앞장서서 산별노조 전환을 했어요. 2001년에 산별노조가 출범을 해요. 민주노조의 전통이 산별노조로 간 거예요.

김영삼 : 2008년도에 박승규 11대 위원장이 언론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다시 전환했어요. 그럼 본부노조는 어떻게 생겼느냐? 다음 12대 강동구 위원장 때 사원행동이 발족했고, 본부노조가 출범했죠.

정유진 : 그럼 박승규 위원장 때는 왜 언론노조를 탈퇴를 했던 거예요?

현상윤 : 싸우기 싫어서 그랬던 거죠. 이명박 대통령 때 결정적으로 나서야 했던 것이 '미디어법' 제정을 막아야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 때 다른 방송사는 다 투쟁을 했는데, KBS만 안 했어요. 하는 시늉만 하고. 이 '미디어법'이 뭐냐면, 종편 만든 법이거든요. 공급-수요가 안 맞는, (이명박) 정권 편의를 위해서 생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든 거예요.

정유진 : 그런데 왜 그런 노조 집행부가 선출된 거죠?

현상윤 : 노조 위원장을 바꿔야 된다는 반발이 컸어요. 그래서 선거를 할 때 민주 후보들을 냈는데, 선거에서 졌어요.

김영삼 : 제가 9대 위원장을 했고, 10대 진종철, 11대 박승규 위원장이었는데,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언론노조 소속이었는데,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정연주 사장이 불법적으로 축출됐잖아요. 그 당시 박승규 노조가 저항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조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싶어서 2011년에 본부노조가 출범했죠.

정유진 : 언론노조 가입이 우리 본부노조와 구노조의 큰 차이잖아요. 다른 것도 있지만, 언론노조가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현상윤 : 기업별 노조를 통해서만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도 산업별 노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기업별 노조 형태로는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어렵죠.

김영삼 : 언론노조로 전환할 때도 KBS 전체 조합원들이 적극적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당위가 있었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찬성이 많았던 거죠. 이후 사회 전체가 민주화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공영방송 KBS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KBS 구성원들의 위기감이 느슨해지면서, 보수적인 노조 집행부가 들어섰고, 보수적인 노조집행부와 개혁적인 회사 집행부간의 마찰이 커져갔던거고.

정유진 : 그럼 언론노조를 탈퇴하기 전의 KBS노조, 그러니까 선배들이 위원장을 하실 때의 KBS노조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현상윤 : 1990년 4월은 KBS 민주화의 뿌리였고, 1997년 노동법 파업에서도 KBS 노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노동법이 번복이 됐고, 김영삼 정권이 몰락하는 전초가 됐죠. 한국사회에 의미있는 역할을 나름대로 했었죠.

정유진 : 당시에는 파업을 했던 KBS 구성원들이 왜 이명박 정부 때는 나서지 않았죠?

현상윤 : 그래서 전 지휘부가 중요하다고 봐요. 노조를 어떤 사람이 끌고 가느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느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느냐가 중요하죠.

김영삼 : 우리 노조 역사를 보면, '이익이 되는 것'과 '의로운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엮여요. 구성원의 5%만 이익이 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의로운 선택'을 하지 않게 됐죠. 집행부를 통해서 조합원들의 의견이 표현되기 때문에 집행부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왜 보수적인 위원장이 뽑혔고, 언론노조 탈퇴를 결정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언론노동자의 이중성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회 정의'를 주장해야 하는 언론노동자의 숙명과 함께 생활경제인으로서 이익을 침해받고 싶지 않는 측면이 늘 갈등을 하는데요.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우리 노동조합이 보수화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각성도 커지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사원행동도 생겼고, 지금의 본부노조가 된 거죠.

현상윤 : 궁금한 게, 후배님은 지난 142일 파업을 어떤 맘으로 한 거죠?

정유진 : 전 개인적으로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가 파업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직접적으로 억압을 당하진 않았으니까 잘 몰랐었는데, 최순실 사태 때 당시 보도국장이 회의에서 '최순실이 박근혜 측근이라는 증거있으면 가져와 봐' 그러면서 취재를 막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JTBC가 최순실 태블

노동조합은 어떻게 살았나?

릿 PC로 특종을 했잖아요. 그 때 “어떻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이럴 수 있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파업이라도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아서 파업을 했죠.

김영삼 : 현실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양심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파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싸워왔던 우리 정황들, 그리고 노조가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기를 조율해 왔고, 공교롭게도 대선 시기 이후로 맞아떨어졌던 것뿐이죠.

현상윤 : 언론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공영방송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파업인데, 사실 파업하고 ‘무도무임’ 받고 하면 좋아할 사람 없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울 땐 싸워야겠다고 생각하는 정신이 본부노조로 계승된 것이고, 언론 본분은 상관없이 개인의 복지 쪽에 더 무게를 둔 쪽이 구노조라고 전 보는거죠. 그런데 당시엔 구노조가 대표교섭노조였고.

정유진 : 파업 중에 노조원 수가 역전됐잖아요.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책임을 회피했던 분들이 이번 파업 때 마음을 바꿔서 오셨던 거잖아요. 그럼 여전히 구노조에 남아 있는 분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상윤 : 일목요연하게 선악으로 나눠서 구분하긴 어려워요. 단, 싸워야 될 땐 싸워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많은 거고, 구노조엔 복잡한 거 생각하기 싫고 회사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정유진 : 근데 구노조 쪽에선 고대영 사장 해임이 2008년 정연주 사장 해임하고 뭐가 다르냐는 식으로 얘길 하잖아요.

금 그 정신이 우리 노조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영삼 : KBS의 개혁을 사장 혼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성원들의 요구를 정확히 경영진에 전달을 해야 하죠. KBS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KBS가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것들을 해달라고 요구해야 하고요. 과거 팀제 개혁이라든지 차장 시험 폐지같은 것들은 노조가 먼저 요구했던 것들인데,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속도 조절, 또는 일부 구성원들의 정서적 이탈을 막는 점이 중요하죠. 특히 지금은 노조가 두 개니까 더 어렵잖아요.

정유진 : 저는 앞으로 우리 회사는 후배들이 발제하는 아이템이 충분히 잘 받아들이지는, 외부적인 압박이나 윗선의 지시로 거부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상윤 : 지금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선배들이 과거에도 이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싸운 거니까. 이제 얼마나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것인가를 신경써야 하고, 사실 노조하려고 입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향점을 누가 끌고 갈 것인가가 중요하고.

정유진 : 네,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애긴데, 조직개편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취재 기자만 봐도 현장에 있는 기자가 너무 적고, 지역국도 마찬가지고.



김영삼 : 보수적인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었느냐 아니냐로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면 2008년 정연주 사장과 2017년 고대영 사장은 확실히 다르죠. 또, 후임 사장을 선출하는 방식도 다르잖아요.

정유진 : KBS 노조가 30년 전에 만들어진 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였고, 지

(약 1시간 10분 가량의 대화는 이후 인력문제 등 회사 내부 문제를 좀 더 나누고 마무리했습니다. 바쁜 가운데 기꺼이 시간을 내어 주신 현상윤 선배와 김영삼 조합원, 정유진 조합원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달라진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야 할 두세 가지 것들

지난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 취지는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해석으로 최대 68시간까지 늘어나 버린 법정 근로 시간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1주일은 근로 의무가 있는 5일"이라는 해석을 고수해 왔다. 평일 연장 근로와 주말 휴일 근로를 별개의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그래서 1주일의 근로 시간은 평일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 여기에다 주말 이들의 휴일 근로 16시간까지 합쳐 최대 68시간까지 용인돼 왔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퍼지면서 행정해석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개정안은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문구를 조문에 명시했다. 이렇게 되면 휴일에 일한 것도 '연장 근로'로 인정된다. 1주 근로 시간이 평일의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을 더한 52시간으로 제한되는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는 사업장은 불법으로 간주돼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300명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또, '무제한 노동'을 가능케 했던 근로 시간 특례 업종을 대폭 줄였다. 근로기준법 59조는 노사 합의를 하면 법에 정해진 연장 근로 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방송업, 운송업, 금융업 등 26개 업종을 '특례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특례 업종을 적용 받는 인원이 현재 453만 명에서 102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 52시간제가 정착돼도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수준의 연간 1,800 시간에는 못 미친다. 제대로 쓰지 못하는 연차 휴가 소진율을 높이고 법정 연차 휴가도 20일 이상으로 늘리는 등 실질적인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방송업은 근로 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방송사는 노사간 합의가 있을 경우 근로 기준법상 근로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근로 시간 특례 업종으로 분류돼 있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 시간을 주 68시간(주 40시간+연장 근로 12시간+휴일 근로 시간 16시간)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근로 시간이 주말 포함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주 40시간에 더해 휴일 포함 연장 근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일상적인 제작 관행 변화는 물론, 재난·재해 보도,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대형 행사가 벌어질 때의 인력 규모까지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외국 의 경우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에서 교대 인력을 충분히 파견하는가 하면, 재난·재해 현장에서 복수의 팀이 교대로 취재를 하며 휴식 시간을 보장받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Q&A (52시간 근로시간제의 경우)

Q. 평일에 12시간 넘게 연장 근로를 하면 주말 근무는 할 수 없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월~수요일에 4시간씩 연장 근로를 했다면 1주의 연장 근로 한도 12시간을 다 쓴 것이고, 따라서 목, 금요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연장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Q. 월요일 20시간, 화요일 20시간, 수요일 12시간을 일한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괜찮나요?

A. 안됩니다. 1일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 기준법 제50조 2항). 또한 1일 연장 근로는 제한이 없지만 1주 연장 근로는 휴일을 포함해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월요일에 20시간을 일했다면 1일 기준 근로 시간 8시간에 더해 1주 최대 연장 근로 시간 12시간을 모두 사용한 것입니다. 1주 12시간의 연장 근로 시간을 모두 소진했기 때문에 화~금요일까지는 1일 8시간의 기준 근로만 시킬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0조 제1호).

Q. 사업주가 주 4일 근무(월~목요일)만 하고, 3일은 휴일로 하기 위해 근로 시간을 늘려 1주 4일(1일 13시간), 52시간 근무를 맞추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매일의 근무 시간 중 8시간 초과 5시간은 모두 연장 근로가 되는데 그 총 시간은 20시간(4일×5시간)으로, 1주 최대 연장 근로 시간(12시간)을 초과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4일만 근무할 경우 기준 근로 시간 최대 32시간(4일×8시간), 연장 근로 시간 12시간, 합계 44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민주노총 법률원 정책연구실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서, 경향신문, 미디어 오늘

올해부터 수습사원도 시간외수당 지급 언론노조KBS본부 문제제기...전격 수용

올해부터 수습사원도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언론노조KBS본부의 문제제기를 회사가 수용했다. 당연한 결과다. 이것이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회사가 지침과 사규로 수습사원의 시간외수당 지급을 제한했던 이유는 '아직 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자제하라'는 의미에서였다고 한다.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상이었다. 수습기자의 경우 경찰서에서 밤을 새며 사실상 24시간 근무를 시켜왔다. 수습년 동안 이어져온 오랜 관행이었다. 시간외수당은 단 한 톨도 주지 않았다. 인권침해이자 노동력 착취였다. (올해부터 군기를 잡는 식의 경찰서 밤샘근무는 사라져서 다행이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PD나 방송카메라, 기술 등 다른 직종의 수습사원들도 시간외수당을 보장받지 못하긴 마찬가지였다.

회사는 언론노조KBS본부의 문제제기가 합당하다고 보고 시간외수당지침과 인사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회사가 수습사원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인사규정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5월말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45기 신입사원들은 이미 발생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방송현안, 지상파방송 산별 교섭으로 해결

KBS본부노조는 방송 현안 해결을 위해 지상파방송사들과 함께 산별 교섭을 추진한다. 산별 교섭하는 방송사는 KBS를 비롯해 MBC와 SBS, EBS가 참여하고, 이후 방송협회 가입사업장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섭 의제는 방송공정성 확보, 제작환경개선, 방송산업진흥까지 세 가지로 나눠 각 의제별로 분과를 구성한다.

'방송공정성분과'는 단체협약 중 공정방송 조항과 편성규약 개선을 교섭내용으로 하고, '제작환경개선분과'는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대응 방안과 비

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방송산업진흥분과'는 지상파의 비대칭 규제 완화와 종편 특혜 환수 방안을 논의한다.

언론노조는 이달 초 KBS와 MBC, SBS, EBS 사측의 산별교섭 참여 의사를 확인했고, 이달 말부터 교섭을 시작해 오는 7월 산별 협약 체결 조인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KBS 본부노조는 방송공정성분과엔 송명훈 공정방송위원회 간사가, 제작환경개선분과엔 김상미 정책실장, 방송산업진흥분과엔 송현준 부본부장이 교섭에 참여한다.

KBS노동조합의 사내 수익사업 중 장학기금 문제 제기 그 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성명을 통해 「사내 수익사업 수익금은 특정 노조의 것이 아니다. 회사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3가지 이행을 요구했다. 그 중 KBS노동조합이 그동안 사내 수익사업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금의 규모가 얼마이며, 사용처는 어디인지를 전체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KBS노동조합 제 86차 대의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KBS노동조합은 장학기금 출연을 위한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약 15억 이상의 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음이 밝혀졌다.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도 주차사업 수익금액 약 11억원 중 관리운영비가 5억(약 44%)인 점이 흥미롭다. 이 세부내역도 추후 공개해 주길 바란다. 지난 성명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의 장학기금은 2021년에는 약 9억 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며 2022년에는 무려 31억 원의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쌀독에 쌀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캄캄한 상태에서 KBS노동조합이 주는대로 받아야 하는 장학기금 운용방식에서는 장학기금에 회비를 납부한 직원이 퇴직 시 자신이 받은 장학금이 적정하게 지급받았는지 확인 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KBS노동조합은 수익금 잔액(약15억)과 운영권을 공제회로 넘겨 사내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의 혜택을 전 직원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당장 급한 장학기금의 고갈을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 집행된 관리운영비(5억) 내역 등 그동안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7년 KBS노동조합 기금 수지 및 잔액현황 중 학자금 수익부분】

| 수 입 | | 지 출 | | 잔액(천원) |
|-------|-----------|-----------|---------|-----------|
| 내역 | 금액(천원) | 내역 | 금액(천원) | |
| 전기이월 | 794,173 | | | |
| 주차사업 | 1,165,168 | 관리운영 위탁 등 | 516,673 | |
| 예식사업 | 110,394 | 베너제작 | 95 | |
| 자판기사업 | 23,100 | | | |
| 합계 | 2,092,836 | | 516,768 | 1,576,067 |

'방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무산...국민이 직접 이사회 구성해야

여야의 정치적 밀실 야합의 희생양으로 처리될 뻔 했던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일단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정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지난 연휴기간 동안 긴급 회동을 하고, 국회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다음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주도권 경쟁을 하는데,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결정할 방송법 개정안이 함께 거론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개헌 국민투표가 물건너 간 상황에서 느닷없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들고 나와 KBS 본부노조를 비롯해, MBC 등 언론노조를 긴장케 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던 '방송법 개정안'은 당초 발의했던 박홍근 국회의원마저 '차악 법안'이라고 할만큼 한계가 명확한 법안입니다.

우리 노조는 언론노조와 여러 단체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각 원내대표에게 항의문자를 보내 다행히 졸속 처리를 막았습니다.

다행이지만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이 2016년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던 시절에 최소한 김재철·고대영 같은 최악의 인물이 공영방송 사장이 되는 길을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나온 법안이었습니다. 일명 '김재철 방지법'이라고 불렸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촛불시민이 만들어낸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은 공영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

립시켜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의 71%가 공영방송 이사를 국민이 선출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고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박홍근 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국회에는 박홍근 의원의 개정안 이외에도 정의당 추혜선, 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이 발의한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국회가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당연히 졸속처리 논란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난데없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공영방송 KBS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욕망에 불과합니다.

올바른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별다수제 같은 복잡한 정파적 셈법이 아니라 오직 방송의 정치적 독립입니다. 공영방송 이사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앞으로도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촛불시민이 만든 KBS의 새로운 시작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2차 정례 공방위 오는 18일 지역보도 특별위 설치 등 논의

제 272차 정례 공정방송위원회가 오는 18일(금) 열린다.

개혁과제 △시사 현안들에 대한 보도 적정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공방위에서 언론노조 KBS본부는 △271차 공방위에서 합의한 지역보도 T/F의 결과 점검 및 특별위원 설치 △271차 공방위에서 합의한 편성위원회 운영지침 소위 구성 및 활동 점검 △2018년도 공방위 운영방안 협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KBS 시사·보도 프로그램

본부노조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정례 공방위를 엄수하고, 공정방송에 대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임시공방위를 적극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국 전 방송본부장, 공직자윤리법 위반 결정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지정 취소

본부장 재직 당시 'KT스카이라이프' 사장에 지원해 반발을 샀던 김영국 전 방송본부장에 대해서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김영국 전 방송본부장이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KBS 글로벌센터장으로 재직했던 경력이 KT스카이라이프 사장직과 직무 연관성을 인정할 것

지난 3월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김영국 전 방송본부장을 공직자윤리위 심사 통과를 조건으로 사장으로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부장직을 유지한 채로 타 회사 사장공모에 응했던 김영국 전 방송본부장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자랑스러운 조합원 수상 소감

노조창립 자랑스러운 조합원

박용훈 라디오

김훈식 영상제작

윤해숙 무기계약직

한미루 제작기술

이웅희 드라마

오연중 아나운서

김영민 스포츠

조승연 보도영상

임종윤 교양기재

김기화 시사편집

김채린 취재

박정혁 충북

손원혁 경남

정현동 광주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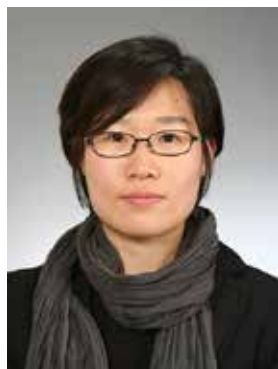
김채린(취재구역, 2015년 입사)

소식을 듣고 민망했습니다. 파업 내 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신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저 혼자만 생색내며 일한 것 같아서. 어떤 대의보단 제 마음이 편하고 싶어서 움직인 시간이었고, 훌륭한 동료들을 지켜보며 치유 받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게 헛됐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한미루(제작기술구역, 2014년 입사)

파업을 승리로 마친지 4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복귀하면서 다짐하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나는 몇 개나 제대로 하고 있나,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네요. 그때의 그 마음들을 잃지 않고, 더 나은 KBS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언제 어디서든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윤해숙(무기계약직구역, 2006년 입사)

지난 10여 년 간, 마음 한편에 늘 '주변인'이라는 소심함을 담고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파업 기간, 저는 KBS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무기계약직들을 동료로 인정하고, 인간적으로 존중해 준 조합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정혁(충북지부, 2014년 입사)

어쩌다 시작한 팟캐스트 때문에 모범조합원으로 선정된 거 같습니다. 재주꾼 안치훈 조합원, 방송 천재 이해수 지부장, 파업 요정 진희정 조합원의 도움이 컸습니다. 팟알못 천천환 이만영 조합원의 드립도 재미에 한몫을 했습니다.

파업은 끝났고, KBS는 국민의 방송이 되기 위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좋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조합원으로 선정해주신 동료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종훈 강원영서지부장

신임 지부장을소개합니다

정말 '어쩌다 지부장'이 되었습니다.

모르는게 너무 많지만, 40여 명 남짓한 강원영서 조합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출범한 5대 노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기념품

북자국에서 노조 창립 기념일을 맞아 작은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작은 기념품이구나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 지난 파업 슬로건을 인쇄한 '3단 자동 우산'입니다. 긴 파업을 마치고 임금보전을 위한 특별 조합비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기념품 구매에 조합비를 써야 하나 고민이 깊었는데요. 30주년인 만큼 빈손으로 지나가기에는 그래도 아쉬움이 남아 예년에 비해 최대한 비용을 줄여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조합비를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아침, 한번 누르면 펴지고, 또 한번 누르면 접힙니다. 진짜 자동입니다.

